

4·15총선 여야 라인업 구성 본격화

민주당 전략공천·경선 등 활용 후보 확정 착수
 자유한국당 선거구별 대표주자 선별 심혈 방심
 양당 외 정당·무소속 후보들 차별화 전략 모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도 선거구별 라인업 구성을 위한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정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중앙당 차원에서 4·15 총선 D-90을 맞아 일제히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에 따라 제주 3개 선거구의 여야 대결구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정예의 멤버로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인 경우 현역 4선의 강창일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 차례 요동을 쳤던 제주도 갑 선거구에 전략공천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 한번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제주도 갑 등 현역 불출마 지역 13곳 모두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선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예비 후보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다음 달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심사를 하며 몇 차례에 걸쳐 후보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경선이 낮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경선지역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1차 내부 충돌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예비후보가 나서면서 최소한의 경선구도는 갖춰지게 됐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김우남 전 의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인 오영훈 의원과 부승찬 예비후보가 출격준비를 마쳤다.

서귀포 선거구는 현재까지 위성곤 의원에 맞설 후보가 나서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공천권을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후보는 전략공천 여부 및 경선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토회복에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

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천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에도 큰 기대를 걸면서 후보군 확정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제주도 갑 선거구에 3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천과정 잡음을 전세역전의 기회로 삼고 후보공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시 을은 북당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부상일 변호사와 예비후보 등목한 강승연 후보가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전성태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오르지 않고 있다.

서귀포 선거구는 범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대결 구도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외에 정의당 및 바른미래당 등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역시 민주·한국 양당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꾀하며 대결구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조선기자 sycho@ihalla.com



2020한라일보 신춘문에 시상식이 16일 제주도 아스타호텔에서 열려 당선자인 시 이도훈, 소설 이은향, 시조 이선호(아들 대리수상)씨(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 기자

“꿈같은 등단... 문단의 큰 나무로 성장하길”

2020한라일보 신춘문에 시상 이도훈·이선호·이은향 당선 김용택 시인 초청 문학 특강 문학으로 새 출발 앞날 격려

2020한라일보 신춘문에 시상식과 한라 문학인의 밤이 16일 오후 제주도 아스타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신춘문예는 시 '순환선'의 이도훈(49, 본명 이양훈, 경기 수원), 시조 '유향나무, 탐라에 서다'의 이선호(45, 경남 김해), 단편소설 '버스커, 버스커'의 이은향(50, 본명 이은정, 경북 경주) 씨 등 전 부문에 걸쳐 당선자를 배출했다.

본심을 맡았던 고성기 시조시인은 심사총평에서 “신춘문예는 꿈과 같은 등단의 무대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습작과 불면의 밤을 거쳤는지 짐작이 된다”면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창작에 임해주길 바란다. 한라일보 출신 작가라는 긍지를 갖고 문단의 큰 나무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용근 한라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오늘 이 자리는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라일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 중심의 문학을 꾸준히 양성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자인 이도훈 시인은 “2년 전 한라일보 최종심에 오른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자부심을 갖고 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다”며 “공부해서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더 좋은 시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향 소설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3년 전부터 시작해 하루에 10시간씩 소설을 썼다. 그동안 서른 편 넘게 썼는데 한라일보에서 당선 통보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다”며 “소설 쓰느라 가정생활을 내팽개치다시피 했는데 이번 수상으로 가족들에게 빛을 갚는 느낌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선호 시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들 원민씨가 대리 수상했다. 이들은 시·시조 당선작과 소설 당선작 일부를 낭송하며 문학인으로서 새 출발을 알렸다.

이은향 소설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3년 전부터 시작해 하루에 10시간씩 소설을 썼다. 그동안 서른 편 넘게 썼는데 한라일보에서 당선 통보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다”며 “소설 쓰느라 가정생활을 내팽개치다시피 했는데 이번 수상으로 가족들에게 빛을 갚는 느낌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선호 시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들 원민씨가 대리 수상했다. 이들은 시·시조 당선작과 소설 당선작 일부를 낭송하며 문학인으로서 새 출발을 알렸다.

이용근 한라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이날 행사엔 나기철·이종형·김진숙 심사위원이 참석했고 이승아 제주도의원,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운진 제주문인협회장, 강덕환 제주작가회의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시인 고해영 김순남 변종태 안정업 장영춘 한희정 허영선 홍경희, 소설가 강준 등도 한라일보를 통해 탄생한 문학인들을 축하했다. 시상식이 진행되기 전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이 초청돼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를 주제로 특강했다.

>>관련기사 5면
 전선기자 sunny@ihalla.com

‘2020 제주들불축제’ 성공 개최 준비 돌입

3월 12일 제주시청서 서막
 15일까지 새별오름서 진행

제주시가 오는 3월 ‘2020 제주들불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23회를 맞는 제주들불축제는 3월 12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서막행사를 시작으로 3월 15일까지 새별오름에서 개최된다.

시는 이를 위해 '불'을 소재로 한 핵심콘텐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들불축제만의 정체성 확립 ▶야간콘텐츠에 국한된 축제 상징성(불)을

주간 콘텐츠로 확대 ▶축제 스토리와 연결되는 뜻깊은 서막행사 진행 ▶관람객이 편리한 축제장 조성 ▶다양한 먹거리와 살거리 개발을 통한 방문객 소비욕구 충족 등 6개 분야에 주력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탄생신화와 마조(천사방성)를 스토리텔링한 주제공연은 현존 최고 사양의 프로젝트 및 나레이션 도입을 통하여 메시지가 강화된 미디어 파사드쇼로 연출하고, 전국 공모를 통한 제주전통문화 및 목축문화테마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들불축제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 들불축제의 새로운 상징물로 기존 대형 달집을 대체할 미술작품인 '파이어아트(불테우리)' 전시 및 태우기를 통해 불의 상징성을 제고하고, 불 활용 버스킹 공연 및 놀이 체험, 화덕 체험 등을 신규 도입하여 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주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한편 불씨 봉송행사는 기존의 다소 간소화된 코스(삼성혈-KAL호텔-광양사거리-제주시청, 1km)에서 '삼성혈-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신산공원-문예회관-동광로-제주시청'(2.1km)으로 확대하고, 퍼레이드 인원도 늘려 범시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분행사 주제공연과 이어지는 퍼포먼스로 사전 불임효과를 만족하는 서막행사가 진행된다. 고대기자

국가균형발전, 상생 도약의 새해를 밝힙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